

A MOREPACIFIC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최고의 선물 아이템

SPECIAL 좋은 스킨케어 습관 들이기

MAKEUP PLAY 데일리 립 컬러

DECEMBER 2022 VOL.650



- 02 NEWS
12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메탈릭 아이 메이크업
- 08 MAKEUP
홀리데이를 위한 메이크업
- 16 PRODUCT
최고의 선물 아이템
- 22 SPECIAL
좋은 스킨케어 습관 들이기
- 30 FOCUS
홀리추얼
- 32 FOCUS
구매팔
- 34 FOCUS
바이탈뷰티
- 36 THIS MONTH'S PICK
홀리추얼
- 40 TIPS
건조한 피부를 위한 메이크업 팁
- 42 MAKEUP PLAY
데일리 립 컬러
- 44 ISSUE
아이케어 팁
- 46 ICON
12월의 인테리어
- 50 FASHION
이달의 쇼핑 리스트
- 52 REVIEW
끈끈한 품평단의 꼼꼼 리뷰
- 54 PLACE
파티를 위한 공간
- 56 EDITOR'S PICK
12월의 강추템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5년간 650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2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 등록 650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홍재욱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콘텐츠팀
 인쇄 (주)태신인택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박지원
 디자인 펜타그램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NUTRI ELIXIR BALM

Hazelnut oil, Avocado oil, Argan oil, Jojoba seed oil,
Blanc Efflorescence™

HOLITU



HYANGJANG JOURNAL

editor PARK JI WON



PRADA

GIVENCHY

CHANEL

DOLCE & GABBANA

GUCCI

오버사이즈 패션은 더 이상 한 계절만을 품미하는 유행이 아니다. 매년 겨울을 달리하면서 패션계를 아우르는 현대적 클래식해 가깝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오버사이즈 룩으로 거듭났다. 겨울 패션의 기본인 코트부터 어깨선을 살린 블레이저, 길고 우아한 맥시 드레스까지. 박시한 아이템 없이는 올겨울 패션을 논할 수 없을 정도. 예쁜데 편안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다.

오버사이즈 열풍이 분 런웨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은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 토즈와 스포트맥스에서는 전통적 느낌의 스리피스 슈트를 선보였다. 품이 크고 아래로 푹 떨어지는 실루엣은 딱딱한 느낌을 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돌체 앤 가바나는 과장된 어깨 장식으로 트렌드를 이끌었다. 이와 반대로 각진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선의 극적인 대비에 매력적인 디자이너도 있다.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버지니 비아르도 이 중 하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입는 일보다 섹시한 것은 없다"면서 남자 옷을 입은 듯한 여자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샤넬은 그의 이런 생각을 반영해 이번 컬렉션에서 오버사이즈 재킷, 품이 큰 벨벳 트라우저 등을 선보였다. 한편, 질산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시 마이어와 루

EVERYTHING IS OVERSIZED : 길고 박시한 실루엣의 오버사이즈 패션 시대가 도래했다.



크 마이어는 여성복과 남성복을 합친 것이 가장 세련된 룩이라고 말하며 남성 의류의 공식에 불륨감 있는 곡선을 더한 더블브레스트 재킷을 선보였다. 지방시의 디렉터 매튜 윌리엄스는 파워풀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담한 형태의 코트와 팬츠를 입은 모델들을 런웨이 위에 세웠다. 바닥에 끌릴 듯 아슬아슬한 길이의 코트를 흘날리며 걸어오는 모델의 모습은 브랜드의 의도와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듯 보인다. 생 로랑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들 역시 발목까지 내려오는 맥시 드레스 차림으로 런웨이를 누볐으며, 구찌의 두껍고 폭신한 코지 코트는 길이가 긴 만큼 더욱 풍성한 실루엣을 자랑했다. 따뜻한 담요에 감싸인 듯, 케이프 코트의 우아함을 강조한 끌로에부터 꽃 비즈 장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품이 넉넉한 보머 재킷을 선보인 프라다까지, 지금 패션계는 매년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으로 오버사이즈 패션을 재해석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허물어 각각의 장점에 집중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티튜드를 반영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만큼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오버사이즈 패션이 앞으로 얼마나 유동적이고 대담한 형태로 우리 앞에 등장할지 자못 기대된다. **LD**

PHOTO: WWW.GETTYIMAGESKOREA.COM, 디디에 두보, 에코, 올가리아비엔, 자디 안 볼테르, 켈러웨이퍼렐, 포시온스, 호렘 서용, 올라

겨울에 최적화된 백

2021년 처음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딕 앤 볼테르의 세실리아 백이 새롭게 탄생한다. LWG 인증을 받은 베지터블 레더에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세실리아 본스트롬의 이니셜 C를 형상화한 버클을 장식한 것이 특징으로, 매 시즌 패턴과 컬러, 소재를 달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코닉 백이다. 이번 시즌에는 양가죽 위에 포근한 시어링 소재를 덧대 겨울을 위한 아이템으로 안성맞춤이다.

문의 자딕 앤 볼테르 (070-7706-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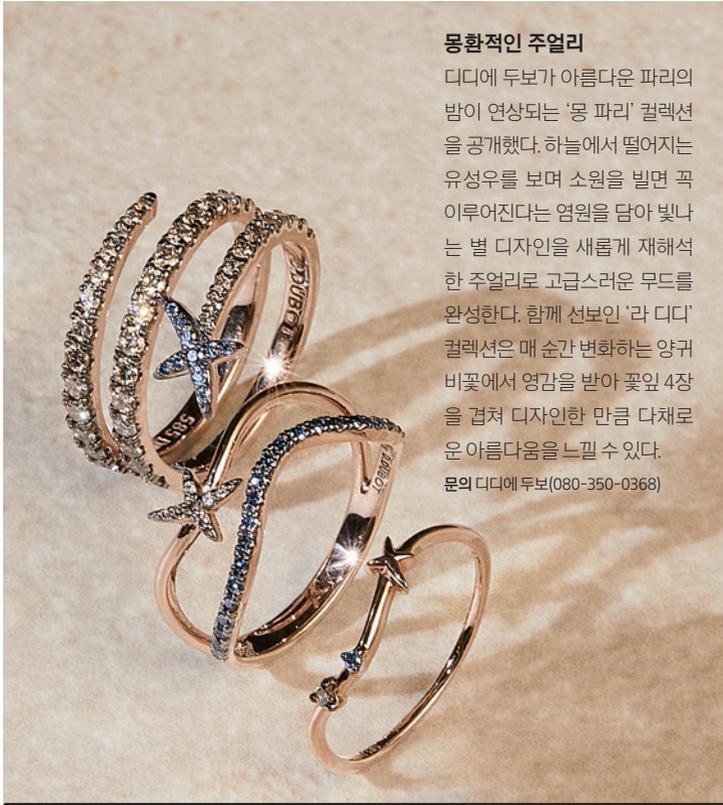
HYANGJANG JOURNAL

필드와 일상에서 모두 즐긴다

옷이 두꺼워지는 겨울철, 패딩 베스트로 새로운 스타일링을 연출해보면 어떨까. 캘러웨어패럴에서 다채롭게 연출 가능한 남녀 패딩 베스트를 제안한다. 촉감이 부드러운 코듀로이 소재로 만든 남성용은 후드를 떼어내거나 붙일 수 있고, 페이크 레더로 만든 여성용은 착용감이 편안하고 양홀이 넓어 활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필드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 입어도 어색하지 않다.

문의 캘러웨어패럴(02-3218-7400)





몽환적인 주얼리

디디에 두보가 아름다운 파리의 밤이 연상되는 '몽 파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우를 보며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염원을 담아 빛나는 별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한 주얼리로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한다. 함께 선보인 '라 디디' 컬렉션은 매 순간 변화하는 양귀비꽃에서 영감을 받아 꽃잎 4장을 겹쳐 디자인한 만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문의 디디에 두보(080-350-0368)



대담한 스타일의 그린 워치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형태와 강렬한 원색으로 독특한 무드를 발산하는 1920년대 아르데코 양식. 영국 브랜드 올리비아버튼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아르데코 컬렉션을 론칭했다. 매혹적인 에메랄드 그린 컬러의 다이얼이 영롱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다이얼에 세팅한 바게트 컷 아워 마커와 모던한 브레이슬릿 스트랩이 우아함에 깊이를 더한다. 문의 올리비아버튼(1688-5501)

여자 손목에 딱!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시계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워치 브랜드 홀라가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홀라는 매번 시그니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여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가죽 스트랩과 크리스털 빛에 따라 변화하는 은은한 선레이 다이얼 등이 특징이다. 다이얼, 스트랩, 브레이슬릿의 아이코닉한 브랜드 로고를 형상화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문의 홀라(02-2215-6478)



크리스마스 인증샷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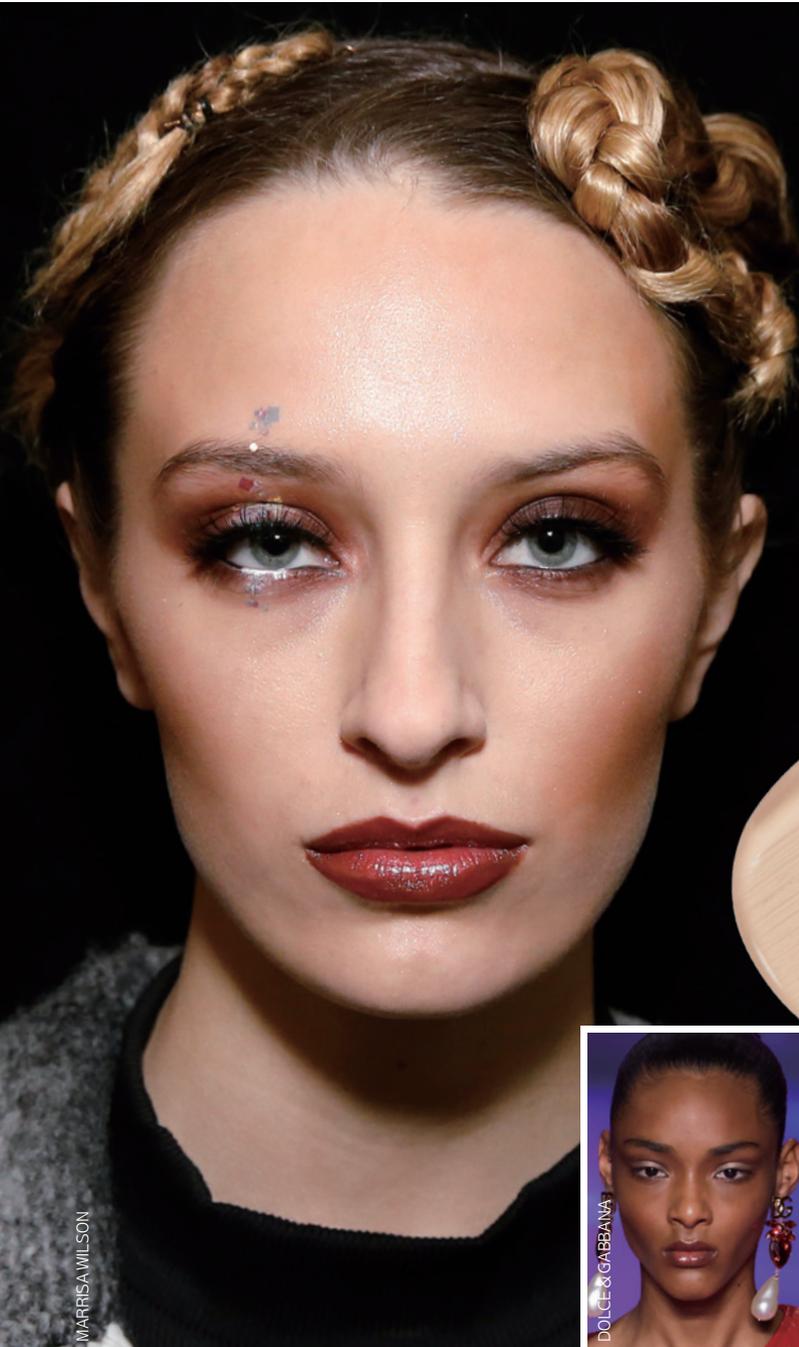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and 연말을 특별한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제안하는 '페스티브 매직 모먼트' 패키지에 주목해보자. 편안한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물론 프랑스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바카라와 협업한 텀블러 잔 한 세트 등 놀라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선착순 50박으로 제한하는 만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서두르길.

문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02-6388-5000)

판타스틱 메탈릭 아이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글로시를 넘어 메탈릭에 가까운 아이 메이크업이 각광받고 있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PARK JI WON



헤라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6만8천원.





CHRISTIAN COWAN



GUCCI



DOLCE & GABBANA



헤라
블랙 쿠션
SPF34/PA++
15g×2,
6만6천원.



GUCCI



MARRISA WILSON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자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일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쓴 채 억눌려 있던 여성들은 화려한 메이크업에 목말랐던 듯하다. 이슬을 머금은 듯한 듀이 스킨에 이어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를 얼굴에 장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메탈릭 아이다. 화려한 빛을 내뿜는 광택을 그대로 살려 눈가에 얹은 것. 눈길을 멈추게 하는 반짝임에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매료되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구찌.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눈 두덩이에 올린 듯 강렬한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크리스찬 카웬은 그보다 좀 더 은근한 무드를 선택했다.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빛을 발하는 실버 컬러 아이샤도를 눈리부터 눈두덩이 중앙까지 퍼 바르고, 관자놀이까지 끌어올리듯 길게 뻗은 라인인 블랙 아이샤도와 어우러져 캣우먼을 연상하게 한다. 돌체 앤 가바나 쇼는 패션부터 뷰티까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다. 매끈한 소재와 빅 주얼리, 메탈릭 아이처럼 과한 것끼리 만나자 오히려 균형이 맞는 느낌. 아이홀 아래쪽을 골드 톤 아이샤도로 뒤덮고, 다른 컬러 메이크업을 자제해 골드 컬러가 돋보이도록 했다. 피터 도의 메이크업도 마찬가지. 아이홀을 진한 컬러로 깊게 표현한 뒤 금빛이 감도는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퍼 발랐다. 여기에 눈썹을 탈색해 아이 메이크업에 더욱 눈길이 집중된다. IA 런던은 아티스틱한 감성이 물씬 풍긴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시머링 골드 컬러를 눈 주위에 거칠게 터치했다. 메탈릭 아이를 연출하는 것을 넘어 작은 주얼리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 폴 코스텔로는 위아래 속눈썹 라인을 따라 눈 전체에 큐빅처럼 작은 보석을 돌렸으며, 마리아 윌슨은 한쪽 눈에만 글리터를 뿌린 듯, 눈동자를 중심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느낌을 연출했다. 다가오는 연말 파티에서 특별한 메이크업을 시도하고 싶다면 참고할 만하다. 한편 일상에서 메탈릭 아이를 즐기고 싶다면 데이비드 코마의 쇼에 주목할 것.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브라운 아이샤도로 눈꼬리만 살짝 빼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 뒤, 화이트 빛이 감도는 아이샤도를 눈동자 위아래에만 터치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에는 다음의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화이트 아이 펜슬로 눈머리를 진하게 칠하면 다음 걸처럼 눈의 요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했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 다른 메이크업은 힘을 빼는 것이 좋다. 피부는 맑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하자. 텍스처가 가벼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결을 정리한 뒤 눈에 띄는 잡티 정도만 컨실러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로 광대 뼈를 한 번 쓸어주면 메탈릭 아이에 어울리는 은은한 윤기를 연출할 수 있어 완벽하다. ⑩

FAIRY TALE

신비로운 동화처럼
환상적인 시간을 만들어줄 4가지 메이크업 룩.

photographer GO WON TAE editor CHOI HYANG JIN



PINK LADY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도 방법에 따라
매혹적인 나이트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다. 피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돈한 뒤 핑크 블러셔를 뺨 중간부터
양옆으로 넓게 펴 발라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살리고,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15 노프라블럼을 입술에 꼭 채워
발라 핑크 톤 온 톤 룩을 완성한다. 눈은
마스카라를 등쪽 발라 선명한 눈매로
포인트가 되게 한다.

CAT'S EYE-LINE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주목시키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블랙 아이라이너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헤라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으로 아이라인 점막을
메우는 느낌으로 얇게 그리고,
언더아이라쉬 라인에도 얇게
선을 그려 눈매를 선명하게 연출할
것. 입술에는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MLBB 컬러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434 팜파스를 발라 마무리한다.





TWINKLE TWINKLE

글리터 메이크업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연말, 글리터를 활용한 메이크업에 익숙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젤 타입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메이크업이 완성되니 말이다. 단,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355 업투미 같은 선명한 레드 컬러를 발라 포인트가 되게 한다.





MODEL: ARA, MAKEUP: KIM DONG HYUN, JAKE LIM, SHIN MIN SOO (A 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GOLDEN GIRL

고급스러운 골드 펠이든 아이섀도를
눈에 발라 연말 분위기를 냈다면,
입술에는 뽀뽀에 잘 어울리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35 뽀뽀를 발라 골드빛
메이크업을 완성하자.

홀리데이 선물 리스트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아모레퍼시픽의 특별한 제품을 눈여겨보길.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PARK JI WON



설화수 진설마스크, 80ml, 20만원.

#피부정화슬리핑마스크
#생기가득
#강력한자생에너지

설화수 진설마스크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에너지를 품은 적송, 그 생명력을 응축해 슬리핑 마스크에 고스란히 담았다.

하루 종일 노폐물이 쌓이고 외부 자극에 시달린 피부를 밤사이 정화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자기 전에 전용 브러쉬를 이용해 눈가를 제외하고 얼굴에 펴 바르면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설화수 본윤에센스 + 본윤유액

건조한 겨울철, 남편이나 아버지의 푸석푸석한
피부가 걱정된다면 이 제품에 주목하자.

남성 피부의 노화 징후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에센스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안티에이징 유액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피부를 늦게 만드는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감초와 인삼 추출물을 담아 피부를 활력 있고
편안하게 개선해준다.

설화수 본윤에센스, 140ml, 7만3천원.
설화수 본윤유액, 90ml, 5만2천원.

#남자피부해결사
#든든한수분보호막
#항산화스킨에센스



아모레퍼시픽 홀리데이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인텐스.
해리 샹도르 바이탈 150ml, 19만9천원 (한정).

#팽팽한탄력
#피부본연의힘
#항산화에너지
#맑고투명한피부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인텐스

귀한 찾임을 1백 일 동안 자연적인 방법으로 발효하고 숙성해 발효차의 핵심 효능 성분을 고농축으로 담은 워터 에센스. 카테킨과 프로비타민 B₅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로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준다. 노화 요소를 다스려 피부의 결은 더욱 부드럽게, 톤은 맑게, 속탄력은 탄탄하게 개선해준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보습에 탁월한 다섯 가지 성분을 황금 비율로
배합한 자음보습단™과 여성에게 이로운
한약재인 당귀와 천궁을 담아 수분과 영양이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해준다. 빠르게
피부 깊숙이 흡수되는 스킨의 소프트 젤 제형과
촉촉한 로션의 리퀴드 제형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보습 효과를 전한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150ml, 6만8천원.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7만2천원.

#영양보습케어
#오랫동안촉촉하게
#수분짱짱스킨로션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 250ml, 2만5천원.
프리메라 베이비 아토티트 크림, 150ml, 3만8천원.

#저자극탑투워시
#베이비고보습크림
#깨끗하고건강한유아피부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 + 아토티트 크림

피부에 자극이 되는 요소를 견어내고 촉촉하게 보습해주는 제품. 페이스 & 바디 워시는 깔끔하게 클렌징해주는 동시에 외부 유해 환경에 시달린 유아의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해주며 베이비 아토티트 크림은 피부의 건조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매일 저녁, 스킨케어 화장품으로 피부를 다스리듯, 마시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앰플로 촉촉함과 탄탄한 피부로 관리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독자적 원료인

AP콜라겐분해효소펩타이드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보습력을 전달하고, 매일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슈퍼콜라겐 골드의 콜라겐 원료는 국내 기능성 콜라겐 중, 최다 피부 개선 지표를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현대인이 놓치기

쉬운 비오틴과 항산화 성분인 셀렌 등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10**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25ml×30앰플, 12만원.

#최다피부개선기능성콜라겐

#1일1앰플

#촉촉탄탄피부완성



오늘부터, 작심 1년

'내년부터는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
이제 그만 미루고 지금부터 당장 새로운 뷰티 습관을 들이자. 더 아름다울 2023년을 위해.

photographer GO WON TAE(인물), JUNG J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클렌징은 이중으로

메이크업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색소침착이나 피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경우 물리적,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잘 밀착하게 해주는 베이스 성분 중 일부가 클렌징 폼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 등으로 1차 클렌징을 한 뒤 2차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길 권한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날 역시 각기 다른 성분의 클렌저로 모공 속까지 말끔하게 딥 클렌징을 하는 것이 필수. 질감이 도톰한 제품을 골라 가볍게 문지른 뒤 빠르게 씻어내는 것이 좋다.



1. 설화수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빠르게 없애주고 보습과 탄력 강화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200ml, 4만7천원.

2.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한방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해 얼굴이 땅기는 느낌 없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해준다. 200ml, 4만2천원.

#2

아이크림은 마사지하며

피부가 유난히 얇고 건조한 데다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노화의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눈가. 이런 특성 때문에 20대 이후부터 꾸준한 눈가 관리 제품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어떻게 바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아이크림의 효과가 더욱 높이는 방법은 바로 마사지. 체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눈가가 붓거나 다크서클이 생기고 주름이 잡히기 쉽다. 그러므로 간단한 마사지를 병행하며 바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눈가를 관리할 수 있다. 많

은 브랜드에서 자사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연구해 밝히고 있으므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살펴볼 것. 눈가 피부가 자극받거나 쓸리지 않게 제품을 도통하게 바르고, 너무 센 힘으로 눌러 마사지하거나 지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적송의 생명력으로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마사지 효과를 높이고 흡수를 돕는 골든 아이케어 마사저가 함께 들어있다. 25ml, 27만원.



#3

스킨케어의 시작은 세안 후 10초 이내에

피부 속 수분량은 세안 직후부터 빠르게 줄어든다. 특히 짙은 파티 메이크업을 지우느라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세심하게 클렌징하며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 막마저 제거했다면 더욱 빨리 메마른다. 문제는 피부가 건조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다 약간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얼굴이 땅기기 전, 가능하면 10초 이내에 스킨케어를 시작하길 권한다. 남은 노폐물을 말끔하게 정돈하고 피부에 수분을 채워줄 토너를 욱실에 두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 하지만 습하고 더운 환경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이 있을 때에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에멀전도 챙겨 바른다.



1. 설화수 윤조수 퍼펙팅 + 윤조유액 퍼펙팅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촉촉하게 만들어 투명한 윤기를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스킨과 약해진 피부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에멀전. 각각 150ml, 7만8천원. 125ml, 8만2천원.

2.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보습 성분에 영양 성분을 더해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지켜주는 영양 보습 케어 스킨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오랫동안 피부 속에 머무르게 하여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영양 보습 케어 에멀전. 각각 150ml, 6만8천원. 125ml, 7만2천원.

#4

피부 관리는 낮에도 틈틈이

제아무리 피부를 든든하게 무장시켰다 할지라도 춥고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 보면 피부가 메마르고 지치는 것은 시간문제.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도 금세 다시 건조해진다면 보다 확실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수년 전부터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해 지금은 많은 이들의 파우치 속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스틱형 밤 제품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조함을 해소하는 것에 더해, 탄력이 떨어지거나 칙칙한 부위를 밝혀주는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므로 주목해보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리프팅 밤
건조하고 주름진 부위에 수시로 바르면 탄력 있고 팽팽한 피부로 바꿔주는 미백·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리프팅 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은은한 광채를 더해준다. 8.5g, 3만8천원.

#5

늘 향기롭게

인상을 결정하는 데 시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후각. 모두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매일 외출 직전에 적정량의 향수를 뿌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 전, 내일 입을 옷에 향수를 미리 뿌려두거나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은 어떨까? 매력적인 향은 좋지만 과한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 스킨트 아랫단이나 바지 끝, 복숭아뼈 안쪽 부근에 향수를 뿌리면 향이 위로 이동하며 오랫동안 은은하게 감돈다.



- 1. 헤라 벨벳 나이트 오 데 퍼퓸**
아이리스, 바이올렛, 머스크가 조화를 이뤄 세슈얼한 여성미를 드러내는 향수. 40ml, 6만원.
- 2. 헤라 지일 오 데 퍼퓸**
머스크 베이스와 그린 플로럴 노트가 조화를 이뤄 자신감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향수. 40ml, 5만3천원.

#6

각질 제거는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는 피부 관리의 기본이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피부 상태가 심각할 때에만 응급처치 중 하나로 각질 제거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자. 묵은 각질을 제때 제거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하면 더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테니. 통상적으로 지성 피부는 일주일에 2~3회, 중성 피부는 일주일에 1회, 건성과 민감성 피부는 1~2주에 1회를 권하는데, 피부 상태나 날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평소 각질이 많이 쌓이는 편이라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해줄 딥 클렌징 제품을,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한 편이라면 자극 없이 묵은 각질만 없애줄 제품을 골라 쓰자.



프리메라 페이스 마일드 펠링

산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모공에 쌓인 노폐물만 흡착해 제거하고, 펠링 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며, 펠링 후에는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개선한다. 150ml, 3만원.

MODEL: HANA, MAKEUP: KIM DONG HYUN, JAKE LIM, SHIN MIN SOO (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7 이너 뷰티도 꼬박꼬박

대표적인 이너뷰티 제품인 콜라겐 관련 제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능성 콜라겐 원료 판매액이 2018년 1백58억원에서 2021년 6백75억원으로 2년 만에 300% 이상 높아진 것만 봐도 얼마나 주목받는 성분인지 알 수 있을 듯. 먹는 콜라겐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입소문 난 결과다. 그러므로 홍삼이나 유산균에 더해, 매일 콜라겐을 챙겨 먹어보자. 믿음직한 성분으로 올바르게 만든 제품을 골라 꾸준히 섭취하면 탄력 있고 촉촉하며 부드러운 피부로 가꿀 수 있다 **h**



- 1.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이너뷰티 건식, 보습과 피부 거칠기를 포함한 피부 개선 지표가 국내 최다로 인정받았다. 25ml×30캡슐, 12만원.
- 2.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플래티넘**
기능성 콜라겐 원료인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오틴, 셀레늄, 엡플에, 비타민 B₆, 비타민 C가 정제에 주원료로 함유된 프리미엄 이중제형 콜라겐 앰플이다. 750ml(25ml×30캡슐)+38.7g(550mg×30정, 740mg×30정), 18만원.

활력과 윤기를 충전하는 고영양 슬리핑 밤

낮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특별한 스킨케어 리추얼을 원하는
당신에게 제안하는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1

꽃과 열매에서 얻은 7가지 성분이 전달하는 풍부한 영양 & 보습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에는 고대부터 피부 미용에 사용된 헤이즐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아카시아, 엘더플라워, 네롤리에서 얻은 'Blanc Efflorescence™' 성분이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도와 밤 사이 활력 넘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2

부드럽게 녹아드는 서벗 텍스처

체온에 사르르 녹으며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서벗 텍스처의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은 기존 오일 밤의 단점을 보완해 유분과 수분을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 이 덕분에 끈적임이나 답답함 없이 피부에 흡수되어 슬리핑 밤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수분과 윤기를 충전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이상적이다.

3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로마 향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과 꽃향이 어우러진 아로마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스킨케어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COMMENT

“건조한 얼굴뿐 아니라 팔꿈치, 입술 등 보습이 필요한 모든 부위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풍부한 아로마 향이 환상적이다. 잠들기 전 얼굴에 바르고 팔사 마사지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듯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POINT 1

피부에 활력과 윤기를 선사하는 고영양 밤

POINT 2

끈적임 없이 촉촉한 멀티 밤

POINT 3

릴렉세이션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 밤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밤 사이 피부에
활력을 채워주고
부드러운 유연감과
운기를 선사하는
고영양 아로마 밤.
28ml, 6만3천원.



구달 로즈 품종 핸드 밤 &
쁘띠 셰리 핸드 밤
구달의 아이코닉 향을
즐길 수 있는 핸드 밤.
시아버터와 호호바 시드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해
손에 영양을 공급한다.
각각 40ml, 4만8천원.

손에 바르는 향수

구딸의 시그니처 향을 담은 고보습 핸드 밤.
벨벳처럼 부드럽고 황홀한 감촉과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POINT 1

로즈 품종과
쁘띠 웨리의 향을
핸드 밤으로

POINT 2

풍부한
보습 성분

POINT 3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

구딸

로즈 품종 핸드 밤 & 뷔띠 웨리 핸드 밤

1

구딸의 시그니처 향을 그대로

구딸 뷔띠 웨리는 배와 복숭아, 머스키 로즈가 어우러진
프루티 플로럴 향으로, 로즈 품종은 타이프 로즈와 불가리안 로즈 등
다양한 장미 향이 어우러진 달콤한 향으로 문칭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구딸 핸드 밤은 구딸의 베스트셀러인 이두 가지 향을
그대로 담아 마치 향수를 뿌린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풍부한 보습 성분

시아버터와 호호바시드 오일 등 강력한 보습 성분을 밤 제형 안에
넉넉히 담아 건조하고 거친 손을 촉촉하고 매끈하게 가꿔줄 뿐 아니라
프레그런스의 향이 더욱 풍부하게 전해진다.

3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

보습 효과가 탁월한 성분을 함유했지만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끈적이지 않으면서 촉촉하고 매끄러운 손을 유지할 수 있다.

COMMENT

“수시로 바르는 핸드크림.
구딸 핸드 밤을 바르면
사람들이 어떤 향수를
쓰느냐고 자꾸 물어본다.”

-스타일리스트 박미경

“끈끈한 핸드 제품은 질색인데,
구딸 핸드 밤은 피부 깊숙이 쫙
스며들어 유분이 겹들지 않아서
좋다. 향기는 물론 최고.”

-<마리골레르> 뷰티 디렉터 김현민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이너뷰티 제품의 필수 조건은 안심감, 신뢰도와 효능.
이 세가지를 모두 잡은 식약처 피부 기능성 인정 최초의 원조 콜라겐!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를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1

국내 최초로 피부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조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의 주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는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피부 수분 함유량, 피부 거칠기 개선 등 12가지 피부 개선 지표를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콜라겐 원료이다.

2

흡수가 빠른 액상 저분자 콜라겐 앰플

콜라겐 파우더나, 정제 제품과는 달리 액상으로 피부 깊숙히 빠르게 흡수된다.

3

75년 피부 연구 노하우로 완성한 마시는 스킨케어 앰플

슈퍼콜라겐 골드는 아모레퍼시픽의 75년 피부 연구 노하우로 완성한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로 주원료인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1,000mg 외에 비오틴과 셀렌을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다. 또한 부원료로 피쉬콜라겐펩타이드 2,300mg과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COMMENT

“맛있는 앰플형 콜라겐이라 쉽게 먹을 수 있어 밤마다 잘 챙기게 된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꾸준히 마셨더니 환절기마다 피부가 엉망이 되던 증상이 사라졌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POINT 1

국내 최초
피부 기능성 인정
콜라겐

POINT 2

흡수 빠른
액상 저분자 콜라겐

POINT 3

비오틴·셀렌(주원료),
비타민 C·히알루론산·
엘라스틴(부원료)로
가득 채운 콜라겐 앰플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속부터 밀도 있게 채워
화사한 광채 피부로
개선해주는 콜라겐 앰플.
25ml×30앰플, 12만원.

THIS MONTH'S PICK 홀리추얼 에센셜 기초 2종 기획 세트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보다 감각적인 스킨케어 리추얼로 나를 가꾸는 소중한 시간

홀리추얼은 에스테틱 전문가의 노하우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능 제품과 감각적 리추얼을 제안하는 하이엔드 스킨 웰니스 브랜드. 깨끗이 정리된 피부 바탕에 탄력 강화와 자생력 향상을 더하는 데일리 리추얼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홀리추얼의 에센셜 기초 2종 기획 세트를 만나보자.

KEY INGREDIENTS

만족스러운 스킨케어 효과를 위해 홀리추얼이 엄선한 핵심 성분.

홀리추얼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피부가 가진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는 에센스 인 로션.

#황

MSM은 황을 포함한 화합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생력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다.

#판테놀

피부 진정과 장벽 보호에
효과적이며 피부 보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블랙리스트 (흑호모발효추출물)

균주를 발효해 얻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성분으로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 저항력을 강화한다.

#콜라겐 &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11

피부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콜라겐과 펩타이드 성분이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준다.

#라피노-락토 트랩 워터™

프로/프리/포스트바이오틱스
유래 성분을 히알루론산 가교 구조로
안정화한 홀리추얼만의 독자 성분.
3단계 홀리스틱 바이오티크스의
효능을 피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면서, 수분 영양 공급 및
보습 기능을 강화했다.

* 라피노오스 (프리바이오틱스)

피부 보습&피부 장벽 강화

* 락토발실러스발효용해물 (프로바이오틱스)

피부 자생력 강화&피부 진정

* 호모/보리씨발효여과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피부 보습&피부 개선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촉촉하고 산뜻한 워터 제형의 멀티
워터 에센스로 라피노-락토 트랩
워터™ 78.03%가 피부 균형을
유지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준다.

바쁜 일상 속 세안 후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나와 마주하고 정성스럽게 스킨케어를 한 때가 대체 언제던가. 크림만 대충 바르거나, 심지어 세안을 건너뛸 때도 종종 있다. 문제는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스킨케어를 소홀히 하면 피부가 건조해 주름이 생기고 깊어질 뿐 아니라 조금 한 마음과 게으른 성향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점.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 외모가 개선된다고 한다. 또 매일 예쁘다는 칭찬을 들은 여성이 실제로 외모가 드

라마틱하게 변한 과정을 담은 실험 영상도 있다. 매일 거울을 마주하고 내 얼굴을, 내 피부를,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홀리추얼의 화장품이 보다 뜻깊은 이유는 그때문이다. 에스테틱 전문가의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안한 홀리추얼의 제품은 높은 효능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거울 앞에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자신을 존중하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소중한 '리추얼'로 바꾸는 과

정을 응원한다. 일상의 방해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질서와 균형, 아름다움과 회복을 제공하는 것이 홀리추얼의 정신.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며 지친 피부를 달래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두 제품은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은 물론, 감각적인 텍스처와 향을 담아 스킨케어를 하나의 리추얼로 승화해줄 것이다.

BETTER TOGETHER

홀리추얼 에센셜 기초 2종 기획세트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홀리추얼의 제품들을 소개한다.

홀리추얼 에센셜 기초 2종 기획세트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에센셜 기초 스킨케어 세트.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150ml +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110ml +
시그니처 센티드 슝(견본) 120g +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견본) 5ml, 10만7천원.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셀페이싱 필



피부에 즉각적으로 윤기와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프로페셔널 2-Step 물광 앰플 패드.
(3ml×2ea)×12매, 4만8천원.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밤 사이 피부에 활력을 채워주고 부드러운
유연감과 윤기를 선사하는 고영양 아로마 밤.
28ml, 6만3천원.

이런 사람에게 추천

POINT 1

홀 케어로 에스테틱 샵에
다녀온 듯한 효과를
내고 싶으신 분

POINT 2

온천에 다녀온 듯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원하시는 분

POINT 3

피부 코어 탄력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신 분

HOW TO USE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홀리추얼의 데일리 리추얼



1



2



3

TIP 1

건조한 피부를 위한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리추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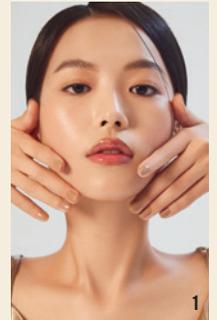
1. 화장솜에 에센스를 묻혀 피부를 가볍게 닦아내며 피부결을 정돈한다.
2. 피부에 남은 에센스를 부드럽게 두드리듯 흡수시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3. 손에 에센스를 살짝 덜어 얼굴을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면 피부에 수분 막이 형성되어 촉촉함이 더 오래 지속된다.



TIP 2

매끄러운 피부를 위한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리추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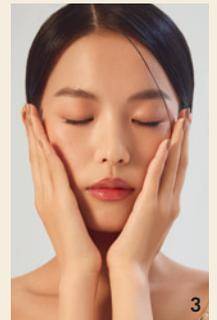
1. 에멀전을 얼굴에 가볍게 바르고 흡수시킨다.
2. 광대뼈 아래의 지압점을 지그시 누르며 끌어올리고, 손끝에 힘을 주어 눈 주변을 밀도 있게 누르며 돌려준다.
3.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준다.



1



2



3

들뜬 메이크업, 제자리 앉아!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바쁜 연말, 살짝 들뜬 당신의 기분을 흉하게 들뜬 메이크업이 망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자.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_각질 제거가 시급하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건조한 실내 공기, 큰 실내 외 온도 차는 최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각질을 뜯뜨게 한다.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상태에서는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그 매력이 반감되므로 피부결이 거칠다 싶으면 바로 각질 제거에 돌입하자. 스크럽 알갱이가 거친 제품을 쓰면 피부가 오허려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순한 제품을 골라 쓸 것. 또 아침에 각질을 제거하면 자칫 자외선을 받아 더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밤에 한다.

프리메라 페이스 마일드 필링

자극 없이 묵은 각질만 싹 제거해 피부를 맑게 가꿔준다. 150ml, 3만원.

#2_쿠션은 필수



히터가 가동되는 실내에 오래 머물러 메이크업이 들뜨고 얼굴이 땅긴다면 수분 함유량이 높은 미스트를 뿌린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지그시 눌러 충분히 흡수시킬 것. 한꺼번에 많은 양을 뿌리는 것보다 적당량을 수시로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후 수분 함유량이 높은 베이스 제품을 바르면 메이크업이 정돈되는데, 두껍게 발리기 쉬운 파운데이션보다는 얇게 발리고 촉촉한 쿠션이 유리하다.

헤라 UV 미스트 쿠션 50+/PA+++

메마른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며 고급스러운 리치 글로어를 연출해준다. 15g×2, 6만6천원.

#3_프라이머로 기초 다지기



공든 메이크업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평소 자외선 차단제와 쿠션의 단순한 메이크업 루틴을 고수했다 할지라도, 피부 화장이 들뜨기 쉬운 이맘때에는 프라이머를 추가해 좀 더 공을 들이자. 특히 얼굴이 쉽게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라면 프라이머로 기름기를 원천 봉쇄한 뒤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지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추운 바깥에 있다가 더운 실내로 들어와 피부 온도가 상승해 메이크업이 들뜨릴 때에도 유용하다. 프라이머를 스펀지에 묻혀 들뜨는 부위를 살짝 닦아낸 뒤 메이크업을 다시 하면 매끈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 SPF30/PA++

바르자마자 얼굴에 밀착해 수분을 채우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하며, 내추럴 톤 업 효과로 피부를 더욱 예쁘게 부스팅해주는 프라이머. 35ml, 5만5천원.

#4_마스크로 수분 공급



잘 때는 몰랐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피부결이 퍼석한 데다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땅기는 기분이 들었던 경험,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는 밤사이 지나치게 건조한 공기에 피부 속 수분을 고스란히 빼앗겼기 때문. 이런 일을 종종 겪는다면 지속적으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슬리핑 마스크를 권한다. 피부의 힘을 끌어올리고 리프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자는 동안 먼지가 달라붙거나 베개에 마스크가 묻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잘 밀착하고 끈적이지 않는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설화수 진설마스크

적응의 강한 생명력을 담은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밤사이 집중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 다음 날 아침 맑고 탄탄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80ml, 20만원.

#5_밤(balm)의 도움을 받을 것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밤 사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꿔주고,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활력을 더해준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녹아드는 셔벗 텍스처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로마 향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28ml, 6만3천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리프팅 밤. 눈가, 입가, 목의 주름을 완화하고 칙칙한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제품. 보습 효과와 광채 효과가 뛰어나다. 8.5g, 3만8천원.

이출했는데 들뜬 각질을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립밤을 발라본 경험,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밤은 오일과 보습 성분을 농축해 굳힌 제품이기에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들뜬 각질을 정리하는데 특효를 보인다. 각질을 가라앉혀야 하는 만큼 보습력이 높고 매끈하게 퍼 발리며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고르는 것은 기본. 단순히 수분 공급 효과를 뛰어넘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줄 가능성을 갖춘 제품도 있으니 이맘때에는 밤 하나쯤은 파우치 속에 꼭 넣어 다니자. **⑩**



LOOK
1

모브 핑크

핑크에 자칫빛이 살짝 가미돼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모브 핑크 컬러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59 커들은 데일리 메이크업에 활용도 높은 립스틱이다.

STEP 1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가볍게 발라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한다.

STEP 2

눈에는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를 발라 은은하게 음영을 살린다.

STEP 3

입술에는 모브 핑크 컬러의 벨벳 립스틱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59 커들을 꼭 채워 바른다.

POINT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59 커들,
3g, 4만원.



머스트 해브 립스틱

올겨울 트렌디한 룩을 위해 꼭 구비해야 할 립스틱.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뮤티드 칠리

레드 립은 이번 겨울에도 초강세!
레드 립을 연출하고 싶어도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살짝 툰 다운된 칠리 컬러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299 블레이저를 발라보길.

STEP 1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이나 헤라 블랙 쿠션을
얼굴에 잘 펴 발라 깨끗한
피부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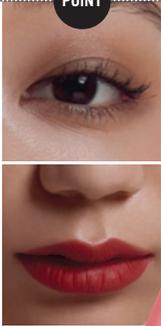
STEP 2

헤라 새도 듀오 #02 이지고잉으로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한 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이호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얇게 그린다.

STEP 3

입술에는 뮤티드 칠리 컬러의 벨벳
립스틱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299 블레이저를 바른다.

POINT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299 블레이저,
3g, 4만원.



맑고 건강한 눈가를 위해

눈가가 건강해야 얼굴이 예뻐진다.
눈가에 노화 징후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에 대응하는 애티튜드에 대하여.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PARK JI WON

우리 눈은 늘 피곤하다. 이것저것 보면서 시각 정보의 대부분을 해석해야 하며,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등 각종 외부 자극에도 시달린다. 눈가 피부 역시 마찬가지다. 매 순간 눈을 감았다 뜨고, 수시로 찡그리고 비비면서 눈 주변 피부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 그래서 눈가는 빨리 늙는다. 아직 눈가에 주름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최고의 안티에이징 방법은 다른 아닌 예방.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늦는다.

우선 눈가 피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눈가의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연약하다. 0.6mm 내외로 피부가 얇기 때문. 얇은 만큼 탄력이 약하고 피지샘이 없어 쉽게 건조해지며,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해 수시로 칙칙해진다. 게다가 가벼운 자극에도 쉬 주름이 생기므로 연약한 아기 다루듯 정성스레 보살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눈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피부가 여느 부위와 다른 만큼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크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연령대나 피부 특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아이크림을 선택하면 된다. 아직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형이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가가 건조해지고 있다면 좀 더 쫀득하고 보습 효과가 있는 아이크림으로 바꾸면 된다.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면 주름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레티놀 성분을 함유한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덧발라야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하는 아침보다는 숙면을 취하는 밤에, 손가락 중 가장 힘이 약한 약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롤링하며 바르면 된다. 물론 아이크림으로 관리하기 전에 전용 리무버로 꼼꼼하게 세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스킨케어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간단한 마사지를 병행하면 제품이 좀 더 잘 흡수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때에도 약손가락을 이용하면 된다. 눈가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면 완벽하다.

아이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것 외에 평소 눈 관리를 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실핏줄이 터지거나 건조해 보이는 눈만큼 피곤해 보이는 경우도 없





HOW TO



- ① 아이크림을 소량 눈 아래에 도포한다. ② 약손가락으로 눈머리에서 눈꼬리 쪽으로 부드럽게 롤링하며 바른다. 이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가볍게 터치해준다. ③ 눈머리, 중앙, 눈꼬리 쪽의 지압점을 지그시 누르면 눈가의 부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④ 양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 눈 전체를 덮으면 아이크림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으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평소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한다. 충분한 숙면,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같은, 뻔하지만 당연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한 시간 정도 봤다면 10분 정도는 눈을 쉬게 해야 한다. 눈을 여러 번 깜빡이거나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글라스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물리적인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좀 더 특별한 관리를 원한다면 눈 찌질을 추천한다. 아침이나 밤에 적당한 양의 팔을 천으로 잘 감싼 뒤 전자 레인지에 30초에서 1분간 데워 눈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팔이 없으면 손바닥 열을 이용하면 된다. 이 잠깐의 시간이 하루 종일 시달렸거나 시달릴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10**

TIP

설화수 윤조아이크림 퍼펙팅 설화수 윤조 퍼펙팅 라인에 아이크림이 함유했다. 윤조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자음단™이 지닌 강력한 자생 에너지를 눈가에 전달해 피부 분연의 힘을 길러준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워 속부터 탄탄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20ml, 10만원.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눈가의 혈행을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칙칙한 기운과 부기를 완화해준다. 골든 아이케어 마사저를 활용하면 다각도로 관리할 수 있다. 25ml, 27만원.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레티놀 성분 함량이 높아 주름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아이크림. 레티놀 외에도 펩타이드,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모공과 결을 부드럽게 개선해준다. 20ml, 13만원.



이번 시즌, 그의 집

정규태 실장의 집은 그가 지금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완성된다.
반려견 뽀리와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한 그의 바람은 치유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최근 더욱 핫해진 북촌을 거닐다 보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나무 문 앞에 세련된 브라운 컬러의 유리문을 더한 한옥을 만날 수 있다. '정규태, 정쁘리'라고 적힌 문패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북적이고 어수선한 외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뽀뽀한 대나무와 푸른 이끼, 그리고 통창 너머 보이는 깔끔하고 세련된 내부까지. 치유재의 모든 것은 정규태 실장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 "침대 앞에 앉아 통창 너머로 푸른 정원과 하늘을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저와 뿌리의 이름을 낭송해주는 소리도 종종 들리죠. 그럴 때마다 기분이요해요."

그의 이름과 함께 문패 한편을 당당하게 차지한 정뿌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반려견.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1년 전에 이사할 집을 구할 때부터 '어쩌면 열네 살인 뿌리와 함께 머물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뿌리와 함께 지내기에 부족함 없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늑했던 것은 아니다. 한옥 지붕 사이로 보이는 사각형 하늘에 매료되어 이 집을 선택했는데, 중정 한쪽에 베란다 같은 실내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은 대부분 막혀 있었으며,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다. 살면서 하나씩 고치자는 생각으로 한 달 뒤 바로 입주했지만 업무량이 급격히 늘며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넉 달 가량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댄 채 지내다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에 철거를 했는데, 이번엔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됐다. 고되고 불편한 일상이었지만 한편 집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겨울과 봄을 보내며 이 집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소 체험했기에 더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 뿌리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바로 일을 그만둔 그는 집을 채우고 뿌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완성된 치유재는 뿌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모든 생명체와 함께 정원을 공유하며, 안과 밖을 연결해 어디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났다.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도, 저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곳, 무언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게을러도 괜찮



@space_art_tae

정규태

미술을 전공한 뒤 작가로 활동하다
공간 솔루션 기업 글로벌서울에서 미술팀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며 청수당과 온천집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년의 휴식 끝에, 이제 다시 재미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은 곳, 자연을 보며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의도가 잘 구현되었는지, 저는 물론이고 햇볕 쬐기를 좋아하던 뿌리도 편안히 지낸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여기 오면 한없이 늘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치유재가 유난히 아늑해 보이는 데에는 딱히 구분되지 않은 넓은 공간이 한몫한다. 거실, 침실, 서재 등 실용적인 이유로 공간을 구분하는 어느 집과 달리, 이곳은 최소한의 것만으로 채





위 공간 활용이 자유롭다. 빈 곳에 큰 식탁을 두면 사람들이 왔을 때 편하게 식사할 수 있지만, 손님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니 그 자리를 식탁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뿌리가 어디든 볼 수 있게,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공간을 나누지 않고 최소한의 문만 남겨 모든 공간이 연결되도록 디자인했다. 그래서인지 대지 면적 30평, 전용면적 16평가량으로 결코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답답하거나 좁아 보이지 않는다.

이 집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야외 정원과 그 옆에 놓인 자쿠지다. 원래 이 집의 중정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 지금은 정원이 된 곳 대부분을 장독대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그걸 다 부수고 정원을 만든다고 주변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모두가 실내 공간을 넓히지 못해 안달인데 왜 있는 실내 면적을 줄이는 거냐고. 반대쪽에 있던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 그 공간을 통로로 활용하면 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으니 없애지 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넓어진 야외 한쪽에 자쿠지를 놓는다는 말에는 몇 번이나 쓰겠냐며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지금은 그 자쿠지 덕분에 더 낭만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야외 목욕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보기엔 너무 예쁘지만, 사실 한옥살이가 녹록지는 않을 터. 불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지내기 너무 좋다고 말한다. 단열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재를 주재료로 사

용해 습기에 취약하긴 하지만 제습기와 가습기를 적절히 활용하며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집을 돌보게 되어 애정이 생기기도 했다. 처음엔 힘들기만 하던 정원 가꾸기도 이제 익숙해져 낙엽을 줍고 이끼를 돌보며 행복을 느낀다. 이끼 관리 비법을 묻는 이들에게 “매일 이끼와 인사를 나누세요”라고 답한다. 새와 나비가 놀러 오는 정원을 보며 그는 자연과 더욱 가까워진 기분을 느낀다. “한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사를 자주 다니느라 집에 추억을 쌓을 수 없었어요. 일정 기간 머무는 곳에 나를 맞춰 적응시키는 게 썩 내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언젠가,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공간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삶이 간결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 이제 공간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게





TIP

정규태 실장이 말하는, 한옥을 개조할 때 유념해야 할 점

1. 기둥과 서까래 상태 확인

목재가 주재료이다 보니 기둥과 서까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히 휘거나 기운 건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나무가 썩거나 많이 휘었다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하다.

2. 침실 천장 공사

서까래는 한옥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지만 서까래에서 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침실 천장은 막기를 권한다.

3. 빛의 흐름 체크

한옥은 나무로 지은 만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빛이 너무 많이 들면 집이 뒤틀리고, 너무 적게 들면 습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의 나를 공간에 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에 맞춰 집을 변화시킨다는 그는, 자신이 살게 될 집을 고르는 기준도 사뭇 남다르다. 인테리어, 공간 배치, 벽과 바닥의 소재 등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특정한 뷰, 집의 위치,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벽 하나 등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 포인트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꾸민다. 계속 변화하는 것이 즐거운 데다 직접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테리어에 날개를 단 셈이다. 조만간 또 이사할 예정이라는 정규태 실장. 다가올 계절에, 그는 또 어떤 삶과 공간으로 자신을 채울지 사뭇 궁금해진다. **01**



Wonder Outers

힙하거나 걸리시하거나! 극명하게 갈리는 올겨울 두 가지 아우터 트렌드.

editor ROH KYUNG EON



데님 패딩 점퍼
1 몽클레르 JW 앤더슨



볼륨감 있는 포켓이 인상적인
패딩 점퍼, YCH



HELIOT EMIL

Y2K VOLUME UP

올겨울 패딩 점퍼를 마련할 생각이라면 다음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할 것. 첫째, 짧은 길이. 둘째, 버클이나 스트링 등의 디테일 장식.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패딩 점퍼만 골라도 이번 시즌 아우터 쇼핑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런웨이에서 선보인 올겨울 패딩 점퍼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 Y2K 트렌드가 확실하게 녹아든 만큼 함께 매치하는 아이템 역시 눈에 띈다. 과감하게 걸으며 드러내는 브라톱이나 언벨런스 미니스커트,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 미니 백 등이다. 독특하고 개성 강한 아이템일수록 패딩 점퍼와 환상의 케미를 이루며 더욱 흥미로운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것이다.



스타일링에 포인트 주기 좋은 트루퍼 햇아르켓



서츠나 스웨터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브라톱 리사양 at 매치스퍼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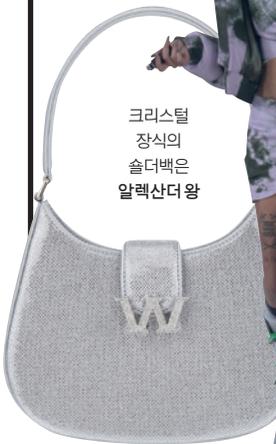


비대칭 허리선이 섹시한 느낌을 주는 데님 스커트 알렉산더왕



벨보텀 팬츠에 플리츠 쇼츠를 덧댄 독특한 팬츠 YCH

크리스털 장식의 숄더백은 알렉산더왕



OFF-WHITE™



스쿨걸 룩에 활용하기 좋은
니트 베스트 로맨시크



언밸런스한 길이의 미니스커트 자라

다양한 옷차림에
매치하기 좋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백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여러 겹 겹쳐
두르면 더욱
멋스러운 벨트
토펜



중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하프 코트 H&M



도톰한 울 더블브레스트
코트 YCH



오버사이즈
체크 코트
이자벨마랑
에뜨왈

코트 차림에
잘 어울리는
로퍼 아쉬



RETRO SCHOOLGIRL

미우미우는 F/W 시즌에도 트렌드에 굽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섰다. 핵심적인 무드는 단연 레트로 스쿨걸의 귀환. 특히 파워 숄더에 버금가는 넓은 어깨, 일자로 푹 떨어지는 투박한 실루엣의 매시한 코트와 걸리시한 이너웨어의 대조적인 매치는 런웨이 초반부터 꾸준히 등장하며 쇼를 이끌었을 정도로 메인 스타일링 중 하나였다. 이런 트렌드가 더욱 반가운 건 옷장 속 아이템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기 때문. 한동안 잊고 있던 케이틀 니트 스웨터, 체크 프린트 스커트, 두꺼운 벨트 등을 찾아 오버사이즈 코트와 함께 근사하게 코디한다면 울겨울에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보낼 수 있다. **LD**

@2da5ni



약건성 피부를 가진 제가 애용하고 아끼는 홀리추얼 제품들!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으로 찻찻 해주면 피부가 완전 뽀송해져요.

@9.1.0.7.3.0



각각 사용해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의 시너지 효과로 겨울 스킨케어 완료!

@ayla_hee



요즘같이 건조한 날에 바르는 화장품을 공개합니다!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으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장벽을 강화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듬뿍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insta.ara



일교차가 크고 피부 손상이 심해지는 계절에는 홀리추얼 퍼펙트 듀오를 만나보세요.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가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이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해준답니다.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니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생생한 제품 평가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을 체험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PARK JI WON

@rohmiyoung



홀리추얼 기초 라인의 에센스와 로션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바르는 중!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를 닦도처럼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에센스는 들뜨는 느낌 없이 촉촉하고 산뜻하게 흡수돼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추천해요.

@babyaji



홀리추얼 없이는 저의 스킨케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차가워 피부도 힘겹겠다 싶어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의 꿀조합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 본연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merryzzy



몸이 피곤한 만큼 피부 컨디션도 좋지 않은 요즘에는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으로 관리해요.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절로 힘이 나는 느낌!

@dkdud5070



오늘은 내 피부가 호강하는 날! 자기 전에 홀리추얼 에센스와 로션을 발랐더니 피부 속까지 수분과 영양이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세안 후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로 촉촉하게 하고,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으로 한 번 더 수분을 채워줬더니 피부가 편안해지고 피부결은 매끈해졌어요.

@smilejoanna22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일등 공신!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는 촉촉하고 산뜻해서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면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할 수 있어요.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은 수분감이 풍부해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고요. 촉촉한 제형이라서 발림성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jwon0808



피부 속은 건조하고 겉은 기름지면서 피부 밸런스가 깨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홀리추얼 데일리 듀오와 만났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스파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피부가 생기있어져요!



HOLLITUAL
Micro Balancing
Essence

Raffino-Lacto
Trap Water™
78.03%

150 ml



HOLLITUAL

Elemental Smoothing Lotion

Sulfur, Panthenol, Collagen, Black yeast,
Acetyl Tetrapeptide-11

110 ml

#피부자생력강화
#기초필수템
#데일리듀오

홀리추얼 에센셜 기초 2종 세트.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150ml + 홀리추얼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110ml, 10만7천원.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퍼스트 에센스와 수분과 영양을 촘촘하게 채워 결을 부드럽게 개선해주는 로션,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특별한 추억이 쌓이는 곳

좋아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연말. 이곳에서라면 더욱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editor PARK JI WON



흐르르르

핫 플레이스 성수동의 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친한 사람들과 넓은 대면형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고, 완성한 요리를 커다란 테이블로 옮겨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면서 도란도란 홈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 공간 디자이너들이 모여 고즈넉한 골목 분위기를 살리면서 꾸민 공간이라 포토 스팟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편한 곳에 놀러 갔듯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흐르르르로 향해보자.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9길 32층 인원 제한 6~14명
비용 주말 시간당 4만원 문의 @hrhr_time



낙산수화

자연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자연의 향기와 사람들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모토로, 서울 한양도성과 혜화문이 감싸고 있는 공간에 자리 잡았다. 통창을 통해 사계절의 운치가 고스란히 깃드는 데다 이곳에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와 야경이 일품. 독채 공간이라 프라이빗한 파티가 가능하니 도심 한가운데에서 숲속에 있는 듯한 운치를 누리고 싶다면 꼭 찾아가보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38 인원 제한 4~8명
비용 주말 낮 14만원 문의 @naksansooхва



문라이트 파티룸

10명 이상의 지인들끼리 모여 올나이트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문라이트 파티룸을 찾아가보자.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초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수다를 떨기에 제격이다. 실제로 함께 모여 영화를 보거나 와인 클래스, 연주회 등을 진행하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빔 프로젝터와 블루투스 스피커는 물론, 커피 머신, 제빙기 등이 마련되어 있어 지인들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파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4 B층 인원 제한30~35명
비용 주말 시간당 5만원 문의 @moonlighton1



스페이스 무노 파티룸

한 공간이 둘로 나뉘어 있는 스페이스 무노 파티룸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인테리어 콘셉트가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덕분에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새로운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 연말을 앞둔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근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으며 그중 한 곳은 좀 더 통통 튀는 컬러와 키치한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벽난로 옆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미드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듯!

주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35길 14-72층 201호 인원 제한 4~8명
비용 주말 낮 10만원 @space._muno



아일랜드이너프 선릉점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일랜드이너프 선릉점을 추천한다. 40평(약 130㎡) 규모의 넓은 공간에 다양한 포토 존은 물론, 실내 테라스까지 자리하고 있다. 마치 자연광이 들어오는 듯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비치된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스피커 등으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영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 한쪽에 준비되어 있는 전자 다트도 소소한 게임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 **📍**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76길 25 B 1층 인원 제한 10~50명
비용 최소 20만원 문의 @islandenough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깐깐하게 고른 12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KIM HEE SOO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피부 본연의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촉촉한 안티에이징
쿠션 컴팩트.
15g x 2, 12만원.

홀리추얼 에센셜 기초
2종 기획 세트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홀리추얼의 에센셜 기초
스킨케어 세트.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와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본품과 함께 시그니처
센트디 슝과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 견본이
제공된다. 10만7천원.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속부터 밀도 있게 채워
화사한 광채 피부로
개선해주는 콜라겐 앰플.
25ml x 30 앰플, 12만원.

12월 345



프리메라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으로 간편하게
메이크업 노폐물과
피지 등을 제거해주는
클렌징 티슈.
60매, 2만2천원.



헤라 하이드레이팅
레이언스 프라이머
SPF 30/PA++
수분 광채 텍스처가
다음 단계의 메이크업
룩을 더 예쁘게
연출해주는 결 프렘
프라이머. 35ml,
5만5천원.



